

B V W A R

Harper's

ART

APRIL 2014





LES BELLES DANSES

퐁피두 센터 역사상 처음으로 현존하는 아티스트에게 바친 회고전 <My Way>의 주인공, 장 미셸 오토니엘. 오는 7월, 그의 최근작 '레 벨 당스'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루이 14세의 정원사가 설계한 이래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문화유산에 발자취를 남기는 최초의 현대미술가. "거대한 역사 속에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과 흥분을 시시각각 실감하고 있다"는 그를 파리의 아틀리에에서 만났다.



1 파리의 아틀리에, 즐겨 작업하는 테이블에서 포즈를 취한 장 미셸 오토니엘
2-3 설치 작품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작품 모형들 4 미래 지구 인간문대 위치한 오토니엘의 아틀리에 풍경 5 오토니엘이 즐겨 사용하는 팔레트와 색채들 6 공방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유리 구슬 7 창가에는 그가 시용으로 제작해본 작업들이 걸려 있다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도쿄의 모리 미술관 야외, 파리의 팔레 루아얌 역 근처 등에 야외 설치작품을 선보여온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은 말한다. "역사적인 장소와 저의 작품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서 전례 없는 역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3백 년의 역사상 최초로 영구 설치되는 현대미술작품 '레 벨 당스(Le Belles Danses, 아름다운 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의 분수 조형물로 이루어진 레 벨 당스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내에 위치한 테아트르 도 분수대(Bosquet Du Theatre d'eau, 물의 공연장)에 설치된다. 1999년 겨울, 태풍으로 파괴된 분수대의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베르사유에서는 건축가, 예술가, 정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년간 공모전을 열었다. 1백40명의 경쟁한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경 전문가인 루이 비네시(Louis Benech)와 함께 참가한 오토니엘의 작품이 최종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오토니엘은 루이 14세의 정원사였던 앙드레 르노트르(Andre Lenotre)가 정원을 설계한 이래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문화유산에 발자취를 남기는 첫 번째 현대미술가가 될 예정이다. 울여름 완성될 예정인 이 작품 이전에도 오토니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르 키오스크 데 녹탕불(Le Kiosque Des Noctambules, 몽유병의 방)'은 미술관이 아니라 파리의 한가운데, 팔레 루아얌 지하철 역에 설치되어 있다. 빨강과 파랑과 노란 유리들이 기묘한 형태로 연결된 이 작품은 2백년 전 파리 지하철 출입구를 디자인한 아르누보의 가장 엑트르 기마르(Hector Guimard)가 설계한 풍경을 일신했다. 누구의 작품인지 알든 모르든 이 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이 조형물에 눈도장을 찍게 된다. 관광객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나 나올 법한 그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파리지역들은 날씨에 따라 그 색채가 달라지는 지하철 출입구를 파리 풍경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다양한 유리 구슬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오토니엘의 작품은 일단 보기에 아름답고 몽환적이라 여타의 현대미술 작가의 그것보다 반응이 좋다. 처음부터 그랬다. 2005년 작품인 '르 바토 드 람(Le Bateau De Larmes, 눈물의 배)'은 그 해 아트 바젤에서 최고의 화제작으로 등극했다. 실제 보트 피플이 타고 다녔던 배를 영롱한 구슬 조형물로 채운 이 작품은 배 안에 담긴 보트 피플의 고통과 눈물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컬렉터들의 주목을 끌었다. 2011년 퐁피두 센터에서 열렸던 회고 전시 <My Way>는 퐁피두 센터 역사상 최초로 현존하는 아티스트에게 바친 회고전으로 주목을 끌었다. 프랑스 출신이라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는 하나 현대미술을 이

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퐁피두 센터가 그에게 대규모 회고전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현대 미술계의 편애를 보여준다. 건물 전체를 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구슬로 가득 채운 이 전시는 대 성공을 거두어 서울의 리움, 도쿄의 하라 현대미술 박물관, 뉴욕의 브루클린 뮤지엄으로 이어지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2년 카셀 도큐멘타를 시작으로 파리의 퐁다시옹 카르티에, 마이애미의 MoCA, 도쿄의 모리 뮤지엄까지 그의 경력은 현대 미술계의 총아다운 경쟁한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바쁜 아티스트로 살고 있는 장 미셸 오토니엘. 파리의 아틀리에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날도 오토니엘은 오는 5월 13일 홍콩 페로탕 갤러리에서 있을 개인전을 위해 홍콩에 갔다 온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1993년부터 유리로만 작업을 해왔다. 가히 오토니엘의 시그니처라 할 만하다. 우리는 전통 공예에 속하는 재료로 현대 아티스트들은 잘 다루지 않는데, 어떻게 유리를 발견하게 되었나? 모든 것은 화산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내가 주목한 소재는 유황이었는데, 그러면서 화산의 다양한 부산물을 접했고, 화산 유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테이블에 놓인 유리를 들며) 이것이 바로 화산 유리다. 화산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유리는 선사시대에 화살촉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 중간 중간에 다양한 광석들이 남긴 여러 가지 색의 자취가 남아 있고, 아주 투명한 것에서 불투명한 것까지 다채롭다. 나는 이 화산 유리를 모으고 연구하면서 인공적으로 재창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몇 년간 각지의 전통 유리공예가들을 찾아 다니며 유리 공예의 세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내 작업에는 유리 외에도 금속이나 금분 등 다양한 소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소재를 쓰건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최고의 장인들과 작업한다. 그들과 일을 하면서 나는 수준급 실력을 갖춘 단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유리공예는 유럽에서도 전통적인 직종으로 꼽히는 만큼 그들만의 폐쇄된 세계로 유명하다. 그러한 유리공예가들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정말 그랬다. 현재 나는 이탈리아 무라노와 스위스 바젤의 유리 장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특히 무라노의 유리 장인들은 이탈리아인



베르사유 분수대에 설치될 곡선미가 돋보이는 모형

답게 그들만의 유대와 결속이 굉장히 강하다. 아무나 작업장에 들어주지 않을뿐더러 주문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팔레 투아얌 지하철 역에 설치될 당신의 작품은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감을 선사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가? 나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영감을 얻는 편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데생이나 일기, 생각을 적어놓은 노트들 말이다. 설치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품이 설치될 특정 장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장소가 영감의 원천이 된다. 작품과 나, 그리고 그 작품이 놓일 환경 사이에 일종의 대화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설치 작업을 좋아한다. 발견의 즐거움이라고 할까. 내 자신의 영역이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즐겁다.

오는 여름,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분수에 설치될 작품 '레 벨 당스'가 바로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조경 전문가인 루이 비네시가 나에게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와 나에게 정원은 풍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적인 경험의 배경이 되는 매우 친숙한 장소다.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와의 작업이라 즐거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베르사유처럼 역사적인 장소에 영구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연구를 통해 이 작업의 주제가 루이 14세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다. '아름다운 춤'이라는 제목은 루이 14세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조각들은 모두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루이 14세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마디로 정원 내 모든 요소가 그의 힘을 묘사하고 신격화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루이 14세를 주제로 정한 뒤 나는 그가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일컫게 된 역사적 배경과 당시 베르사유 궁전의 조경사였던 르 노트르가 이 신격화된 인물의 형상을 정원

에 그린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701년 라울 오제 피아에(Raoul Auger Feuillet)가 루이 14세의 춤을 형상화해 표현한 책 초판본을 보스턴 도서관에서 발견한 게 결정적이었다. 자수를 연상케 하는 화단의 당초 문양은 원래 국왕의 장식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책을 보고서 이 문양이 루이 14세의 궁정 댄스 스텝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기이하게 얽히고설킨,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흥겹고 활기 넘치는 춤을 형상화하고 해석한 시도들이라니! 정원 위에 표현된 춤은 내게 아주 명확한 영감이 되어주었다. 사실 이는 춤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으로부터 클래식 발레가 탄생했으니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이 비네시가 현대적으로 해석한 분수 위에 내가 루이 14세의 움직임 형상화한 조각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이번 작업에 대해 "기념성과 섬세함을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예술작업은 건축 프로젝트와 같다. 건축가와 분수 기술자, 역사학자들과 같이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 보니 일의 스케줄링과 기획이 정확해야 하며 사용되는 자재와 소재의 경우 몇 십년 또는 몇 백년 지속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섬세함과 정확함을 그려내는 것이 포인트다. 나는 기념성과 섬세함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 프로젝트의 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각들이 분수가 뿜어내는 물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조각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겸손한 모양새를 띠게 되길 원했다. 다행히도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이 프로젝트 덕에 처음으로 분수가 뿜어내는 물의 움직임을 반영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 현대예술가로는 최초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아틀리에를 오픈했다고 들었다. 축하한다. 이 아틀리에 안에서는 재료가 될 유리 등을 조합해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설치 7월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은 혼란스럽지만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누릴 것이다. (웃음)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 속

에 들어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흥분을 시시각각 실감하고 있다. 아마도 내가 프랑스인이라 그렇겠지만 3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상상해보라. 내 앞에 아주 작은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서자 내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마법 같은 행운이라 생각한다.

부디 당신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지금껏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왔다. 당신의 일기엔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항상 내 스스로가 젊은 아티스트, 막 데뷔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 내 경력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매 작품을 할 때마다 눈앞에 있는 그 작품을 생각한다. 과거의 작품이나 과거의 경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도 매우 행운이다. 물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있다. 지하철 설치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내 작품이 대중을 만났을 때였다. 현대 미술 신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예술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무척 드물다. 그런 면에서 나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기쁨이란 대단하기 때문이다.

'눈물의 베'라는 뜻의 '르 바토 드 랑'처럼 당신의 작품은 상처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모든 작품의 시작은 개인적이며 그 경험들은 많은 경우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 않다. 그럴 경우 상처, 공허함 같은 DNA에서 발현된 아름다움 이므로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과 상처라는 양면적인 DNA를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기작에서 이 두 세계의 대조가 명확했다면 25년간의 작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그런 면이 사라지고 있다. 요즘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 자체다. 예술가로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특별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보면서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현대예술가들은 상당히 많다. 이를 테면 무라카미 다카시는 정말이지 완벽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반면 나는 현실에서 가공의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경험에 관심이 있다. 나의 작품은 엄연한 일상에서, 오늘의 현실 세계에서 작용한다. 내 작품의 주 재료인 유리 역시 아주 흔한 재료다. 그 흔한 재료들이 빛내는 경이로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세계. 이것이 내 작품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였으면 한다. 나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어떤 특정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느끼고 생각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작용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동양 문화에 경탄한다. 유럽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어떤 형태나 형태로 작용하지만 동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세계기 때문이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당신에게 패션계에서의 러브콜은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르겠다. 다음에서는 2012년 한정 생산되는 자도르 향수의 리미티드 에디션 디자인을 의뢰했고, 칼 라거펠트가 직접 선정한 당신의 대형 유리 목걸이 작품들을 전 세계 샤넬 매장에서 볼 수 있다. 현대미술 작가들과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대형 미술 컬렉터들은 대부분 유명 패션업체의 수장들이다. (크리스티 경매의 회장이자 구찌, 생 로랑 등을 보유한 케어링(Kering) 그룹의 프랑수아 피노 회장이나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을 떠올려보시라.) 나는 이러한 현상을 상업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컬렉터들과의 관계는 여자 와 남자의 관계처럼 그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생각된다. 컬렉터들은 특정한 예술 작품을 선택하고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준다. 예술에 대해 흥미와 열정을 가진 개인이 예술을 창조하는 아티스트를 만나 개인적인 관계

를 형성한다. 그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 요즘의 아트 신이다. 사람들에게 예술가로서의 당신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에 기려져 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가. (웃음) 나의 일상은 매우 심플해서 별달리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작업 이외의 일들은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 일 중독자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일 이 끝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작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에 따르는 기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 (웃음) 작업을 하고 남는 개인적인 시간에는 다른 파리지앵들처럼 파티에 서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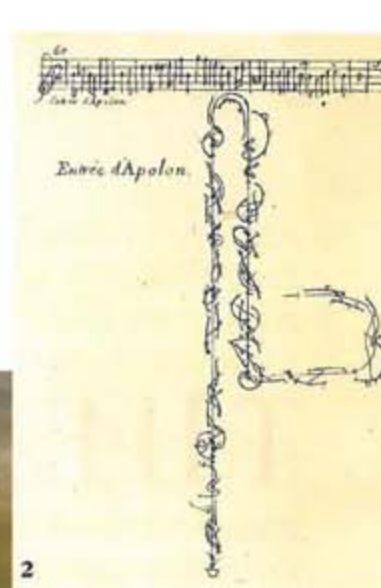
책이나 음악, 영화 등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나? <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유명한 소설가 장 지오노(Jean Giono)의 책을 제외하고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책보다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게 더 잘 맞는다. 텍스트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느낌, 오늘을 살아간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음악은 거의 듣지 않는 편이다. 작업을 할 때 조용함이란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시스턴트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틀리에에서 음악은 금지다. (웃음) 영화는 SF 영화류를 좋아한다. 공간을 재창조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아서다. 언젠가 좋은 감독을 만나면 SF 영화에 배경이나 공간, 시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특별히 영향을 준 아티스트를 묻고 싶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 Torres)를 존경한다. 그는 컨셉추얼한 아트에 아주 개인적인 감성을 불어넣은 첫 번째 아티스트다. 유리 구슬 등으로 만든 커튼 같은 작품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상당히 미니멀하고 컨셉추얼한 그만의 시선이 담

겨 있다. 생전에 그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작품으로 보는 것보다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1997년, 오토니엘은 에이즈로 사망한 그를 추모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로 '상처 목걸이'를 만들었다. 평소에 자신의 작품을 나눠주기 좋아했던 곤잘레스 토레스를 떠올리며 만든 이 작품은 1천 개로 제작되었고, 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착용한 모습을 촬영했다.) **1** 칼/이저은(칼립니스트) 에디터/인문선

※ 이저은은 공예 전문 김성자사자 프랑스 미술사에 대한 책 <부르주아의 유쾌한 사생활> 등을 집필한 칼립니스트이며 한국의 여러 잡지에 미술 전시와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은 내앞에 아주 작은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서자 내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느낌이다.



1 베르사유 궁전에서 포즈를 취한 루이 비네시와 장 미셸 오토니엘
2 라울 오제 피아에가 루이 14세의 춤을 형상화해 표현한 책 내용
3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분수에 설치될 작품의 일부

ARZ/ (시계 왼쪽) © Chateau de Versailles, Thomas Garnier, © Raoul-Auger Feuillet, The Entrance of Apollo, 1704. © Chateau de Versailles, Thomas Garnier